

## ‘적응능력 배양과 자립 체질로의 변환’ 필요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오늘 협회 창립 28주년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협회는 설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재’와 ‘보험’을 두 축으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다해왔고 자부하며,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러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가족과도 같은 동료직원들을 떠나 보낼 때는 많은 갈등과 함께 마음이 참으로 아팠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범국가적으로 추진된 혹독한 구조조정을 우리 협회는 임·직원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습니다.

또한 충분하지 못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안전점검, 소화설비할인검사, 우량할인조사 등 국가방재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왔고, 28년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재컨설팅, 연구용역 및 방재실무교육 등 수익성업무와 국가중요보안시설에 대한 손해보험공동인수업무도 상당한 신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대부분이 구조조정에 따른 효과와 맞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한 임·직원 여러분의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는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세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속해있는 보험업계는 더욱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개 사원사 중에서 3개사는 퇴출 여부가 이번 달에 결정되고, 또 다른 1개사는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보험요율의 완전자유화로 인한 가격구조의 변화, 방카슈랑스의 도입, 그리고 인터넷 등 판매채널의 다변화로 인하여 경쟁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보험사들까지 국내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미 손해보험 7개사, 생명보험 7개사, 재보험 4개사가 국내 영업을 위한 금감원의 본허가 또는 예비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중에 있어 앞으로 국내 보험시장은 그야말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보험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적응하는 능력의 배양과 자립할 수 있는 체질로의 변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강하거나 영리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민감한 것이 살아 남는다.”라는 찰스 다윈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변화하는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과거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힘을 쏟다가 사라져 가는 반면,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여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디지털 혁명기에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벤처 정신을 가지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추구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다행히, 최근 소방제도의 개선과 재난보험제도의 도입 등 주변 상황들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거기에 우리의 노력을 보태어 가장 이상적인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마다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방재에 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을 갖춘 여러분이 협회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고 미래의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고부가가치 전문인력의 양성과 이에 바탕을 둔 시스템 구축을 경영목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시행중인 업종별 전문직군제와 지식기반전략정보시스템의 구축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협회가 오랜만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신입직원들의 입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협회의 발전과 자신들의 꿈을 위해 열심히 근무해줄 것을 바라며, 아울러 선배직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보살핌과 선도적 역할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젊고 패기있는 인재들이 입사한 것을 계기로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사랑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임·직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내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와 아울러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5월 15일

이 사장 오 상 현